

# 작가연구를 통한 유겐트스틸

A Study on Jugendstil through Designers

조 숙 경

# 작가연구를 통한 유겐트스틸

조 숙 경\*

## A Study on Jugendstill through Designers

Sook-Kyung Cho

### 목 차

- |               |             |
|---------------|-------------|
| 1. 서 론        | 3. 유겐트스틸 작가 |
| 2. 유럽의 아르누보   | 4. 결 론      |
| 2-1 벨기에       | 5. 참고문헌     |
| 2-2 영국과 스코틀랜드 |             |
| 2-3 프랑스       |             |
| 2-4 오스트리아     |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furniture and furniture designers in Art Nouveau which was called as Jugendstill in Germany. Jugendstill was developed on the center of Munchen, Darmstadt, and Berlin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it was developed differently from Art Nouveau in the rest of European countries as the Rococo style and the Baroque style of Germany were done so. The furniture designers of Art Nouveau pronounced their use of decorative motifs from nature with birds, flowers, insects, fish, even landscape represented, but the designers in Jugendstill made the elaborate curvilinear design simply stylized and abstract: the design of Art Nouveau was seen as the superfluity of the ornament but the design of Jugendstill was seen as the simplified lines and restrain of the ornament. Hence, Jugendstill was deeply related with the scientific and rational thought of Germany, and then, it was based on the Deutscher Werkbund found by Hermann Muthesius.

Key words: Jugendstill, Furniture, Germany

---

\* 서일대학 생활가구디자인과 전임강사, 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Korea, 131-702

## 1. 서론

### 1-1 연구목적

과거로부터의 이탈, 새로운 기술적 완전을 이상으로 추구했던 아르누보는 벨기에를 시초로 1895년부터 10년간 전 유럽에서 성행했으며, 건축과 공예분야에 두드러진다. 과거의 대칭적이고 장식적이며, 정적인 경향에 반대하여 비대칭적이며, 동적인 경향을 띠었으나 장식적인 측면은 탈피하지 못했고 오히려 과도한 장식성으로 빠지는 폐단을 낳게 된다.

유겐트스틸(Jugendstil)은 독일의 아르누보를 지칭하는 말로써 18C 후반에 대도시인 뮌헨(München), 다름슈타트(Darmstadt) 그리고 베를린(Berlin)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유럽 다른 나라의 아르누보와 유겐트스틸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독일의 바로크와 로코코양식에서 싹트기 시작했던 독일의 합리주의와 관계가 깊으며, 후에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n Muthesius)에 의해 일어나는 독일공작연맹과도 관계가 깊다. 아르누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겐트스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가구디자인 연구의 일환으로 유겐트스틸 가구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독일의 과거와 현대에 이르는 가구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아르누보가 시작되는 1895년부터 독일의 독일공작연맹이 결성되는 1907년 이전까지의 유겐트스틸 가구들을 작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유겐트스틸과 아르누보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벨기에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세세션(Secession: 분리파) 작가들을 중심으로 가구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재료들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대표적인 유겐트스틸 가구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쾰른(Köln)의 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전문서적 그리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작가별로 가구의 형태와 재료를 분석하였다.

## 2. 유럽의 아르누보

아르누보(art nouveau)라는 명칭은 사무엘 빙(Samuel Bing: 1838-1905)이 파리에 만든 상점의 이름 ‘라 메종느 아르누보(Maison De l’art Nouveau)’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이 장에서는 독일을 제외한 유럽 나라들의 아르누보를 작가들의 가구들을 통해 살펴본다.

### 2-1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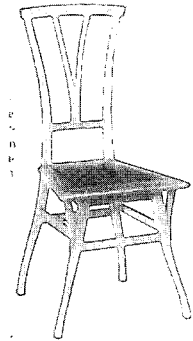
아르누보 발생의 근원지인 벨기에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앙리 반 데 벨테(Henry van de Velde: 1863-1957)와 빅토르 호르타<sup>1)</sup>(Victor Horta: 1861-1947)가 있다. 벨테는 1900년대 초기 10년 동안 독일의 건축과 응용미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자신의 이상인 모리스<sup>2)</sup>처럼 브뤼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실내를 통합적인 내용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예술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06년 바이마르 공예학교를 설립하고 독일에 머무는 동안에는 매킨토시처럼 깨끗하고 흰색의 가구들을 디자인 하였다.

그의 가구들의 특징은 호르타의<그림20> 자연미가 강한 식물줄기나 동물들의 선과는 달리 흐르는 듯한 선 또는 아르누보의 식물줄기들을 추상화한 열정적인 선들이 특징이며, “선은 힘이다”라는 좌우명을 만들기도 하였

1)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벨기에의 대표적인 아르누보작가. Lydia L. Dewiel, stühle & sessel, HEYNE, 1999

2) William Morris(1834-1896): 영국출생, 중세로 돌아가자는 수공예중심의 민중예술을 주장했으나 일부상류층을 위한 예술운동으로 전락함. 정시화, 산업디자인150년, 미진사,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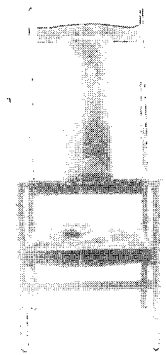
다. 초기에는 유럽산 목재를 사용했으나 후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마호가니, 레몬나무를 사용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가구들은 수공예 제작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가여서 부유층만이 살 수 있었다.



<그림 1> 벨테, 식당의자, 참나무, 브뤼셀, 1895

## 2-2 영국과 스코틀랜드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윌리엄 고드윈<sup>3)</sup>과 찰스 프란스 어네슬리 보이시(Charles Francis Annesley Voysey: 1857-1941)가 있다. 보이시는 초기에 모리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림2>와 같이 기계로 가능한 직선적이며 기능적인 가구들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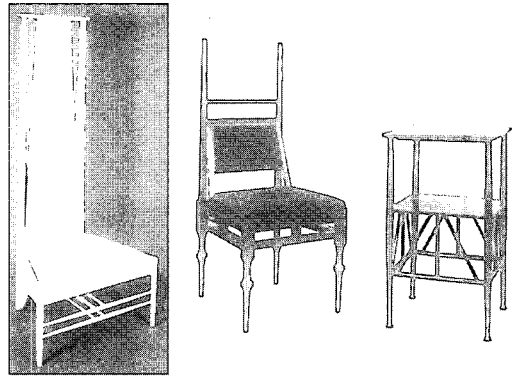


<그림 2> 팔걸이의자, 떡갈나무, 가죽, 1906-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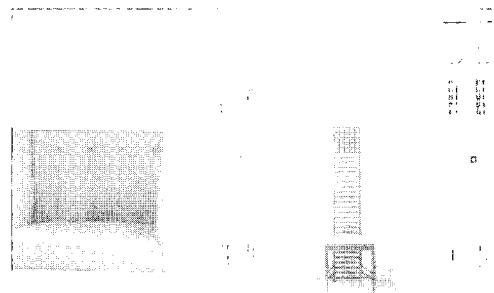
스코틀랜드의 대표작가로는 찰스 레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 1868-1928)로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구디자인은 고드윈의<그림4> 영향을 받았으나 <그림3, 5>에서처럼 높은 등받이와 기하학적인 선 그리고 극단적으로 두드러지는 개성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의자들은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새롭고 독특한 미학이었다.

3) Edward William Godwin(1833-1886): 영국출생. 건축과 도시공학 전공. 일본의 실내장식과 형태의 영향을 받음. Möbeldesign, Sembach, Leuthäuser, Gössel, Taschen, 1993

흰색을 위주로 보석 같은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그의 직선적인 형태는 오스트리아의 후기 세세션에 영향을 끼친다.



▲<그림 3> 맥킨토시, 높은 등받이의자, 1900  
▶<그림 4> 고드윈, 떡갈나무에 검은 칠, 런던, 1885



<그림 5> 맥킨토시, 침실의 소파, 옷장, 의자<sup>4)</sup>, 글래스고우, 1903

## 2-3 프랑스

대표작가로는 엑토르 귀마드(Hector Guimard: 1867-1942)와 으젠 가이야드(Eugene Gaillard: 1862-1933)가 있다. 귀마드는 그의 집을 위한 가구와 양탄자, 조명등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설계하였는데, <그림6>에서처럼 흐르는 듯한 곡선이 특징이다. 가이야드는 마호가니, 호두나무 그리고 장미목과 같이 단단한 나무를 주로 사용했으며, <그림7>에서 보이는 것처럼 식물줄기와 같이 흐르는 곡선이 특징이다.

4) 맥킨토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서양물푸레나무에 검은 칠(첫 모델은 떡갈나무임). 쿠션. 격자무늬의 등받이.



△<그림 6> 귀마드, 목재, 가죽쿠션, 1898

▷<그림 7> 가이야드, 호두나무, 가죽쿠션, 1900년경

## 2-4 오스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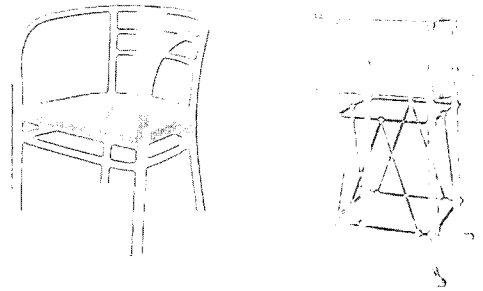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세세션은 1897년 바그너(Wagner), 모저(Moser), 호프만(Hoffman) 그리고 독일의 올브리히(Olbrich)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독일에 많은 추종자들을 형성하게 된다. 고급미술과 저급미술의 차이점을 부정하고 모든 미술은 훌륭하다고 주장했던 반아카데미적인 이 운동은 귀족주의로 전락하여 실패한다.

### 2-3-1 오토 바그너

(Otto Wagner: 1841-1918)

오스트리아의 펜칭 태생으로 빈(Wien)학교의 설립자이며, 가구제작에 있어서 곡목기술이나 적층합판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은 당시의 사회적인 변혁과 함께 영구적인 공론으로 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가구는 빈의 우편국에 놓인 의자<그림8>로 Kohn & Kohn사와 토네트사<sup>5)</sup>에서 생산되었으며, 여덟개의 시리즈로 50년 동안 판매되었다. 인체공학적으로 구부러진 등받이와 팔걸이 선은 토

네트 곡목기술의 진보된 형태로 곡선적인 다른 유겐트스틸의 가구들이 원목을 깎아 붙인 것에 반해 바그너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곡목이나 합판적층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건물의 형태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구와 실내디자인에서처럼 수준 높은 가공법과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8> 우편국의 팔걸이의자, 자작나무합판, 알루미늄, 1902-04

<그림 9> 침실의 보조테이블, 금속, 목재 빈(Wien), 1898/99

### 2-3-2 콜로만 모저

(Koloman Moser: 1868-1918)

빈 세세션과 빈공방의 창립구성원이었던 그는 바그너의 제자이며, 세세션을 위한 포스터도안과 자신의 전시 카타로그를 만들면서 그래픽과 일러스트 디자이너로 활약하였다. 그의 가구들은 아래 <그림10>과 같이 직선적이며 기능적인 것이 특징이며, 네모 안에 원을 그려 넣은 나선(螺鈿)유니트들이 띠처럼 장식된 것이 특이하다. 또한 광택이 강한 마감을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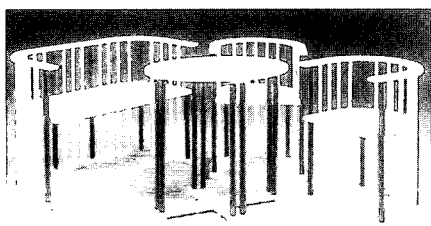
<그림 10> 식당 가구, 느릅나무합판, 나선, 1904

5) 독일의 미하엘 토네트(Michael Thonet: 1796-1871)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로 후에 그의 아들 다섯 명에게 물려주면서 “토네트형제사”로 명칭을 바꿈. 곡목기술을 개발했으며, 최초의 대량생산가구를 만들. 현재 독일의 헤센주에 있는 프랑켄베르그에 증손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Möbeldesign, Sembach, Leuthäuser, Gössel, Taschen, 1993,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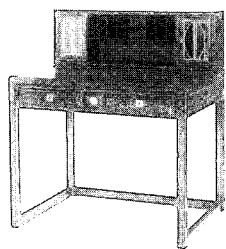
### 2-3-3 요세프 호프만

(Josef Hoffmann: 1870-1956)

체코태생으로 당시 오토 바그너의 제자였으며, 예술공동체 빈 세세션을 결성하게 된다. 그의 동료 모저처럼 윌리엄 모리스나 예술공예운동의 작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러한 그의 신념을 건축, 실내장식 그리고 가구에 표현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는 의자디자인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1900년 맥킨토시는 비엔나 산업박람회에 스코틀랜드관을 디자인하였고, 관람을 위해 오스트리아에 방문하면서 그의 직선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은 가구들이 빈 세세션에 전시되었다. 호프만의 가구들은 대부분 아방가르드<sup>6)</sup>적인 건축과 연관이 있으며, 후기에는 맥킨토시의 영향으로 직선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아래 <그림 11>은 흰색과 검정색의 기하학적인 요소로 만든 가구로 후기 세세션에 속한다. <그림 12>은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형태에 책상위의 양쪽 문에 타원의 장식만을 가미하였다.



<그림 11> 살롱-장식물, 1900



<그림 12> 작은 책상, 참나무에 검은 칠, 빈, 1905

6) avant-garde(전위예술): 20세기 초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자연주의와 의고전주의(擬古典主義)에 대항하여 등장한 예술운동.

### 3. 유겐트스틸 작가

아르누보는 벨기에를 시초로 프랑스, 영국 등 전 유럽에 성행한 장식적인 양식으로 건축과 공예분야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진다. 독일의 아르누보를 지칭하는 유겐트스틸은 1896년 뮌헨에서 만들어진 삶과 예술을 위한 뮌헨일러스트 주간지 “유겐트(Jugend)”에서 유래되며, “청년, 젊음”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젊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관습에 무관심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 가능성을 제시했던 이 주간지의 좌우명은 “무엇이든 옛날부터의 모든 것은 제명한다.”였다. 1898년 뮌헨에서 수공업 예술가들을 위한 연합작업장이 만들어졌으며, 같은 해에 드레스덴(Dresden) 연합이 결성되었다. 1907년 드레스덴 작업장은 뮌헨의 주택정돈을 위한 작업장과 함께 독일의 작업장으로 통합되었고, 1903년에 빈 공방이 창설되었다. 유겐트스틸의 주요 가구디자이너들은 당시에 활발한 활동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깊고 현재 연구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로 선택하였다. 올브리히(Olbrich)를 비롯하여 리머슈미드(Riemerschmid), 베렌스(Behrens), 엔델(Endel), 판콕(Pankok) 그리고 파울(Paul)등이며, 이들 작가들의 가구를 살펴봄으로써 유겐트스틸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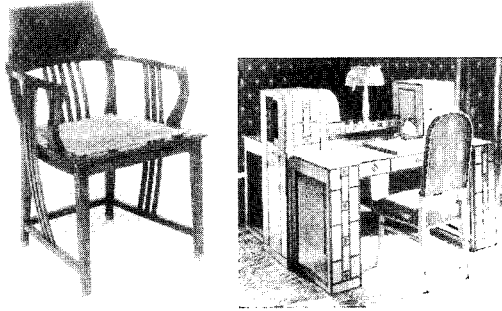
#### 3-1 요셉 마리아 올브리히

(Joseph Maria Olbrich: 1867-1908)

현재는 체코에 속해있는 트로파우(Troppau)에서 출생했으며, 그의 가구는 반 데 벨데처럼 항상 전체적으로 공간에 알맞은 독특한 모델들을 만들었다. 1897년 빈 세세션의 설립에 참가했던 그는 다름슈타트와 빈의 기능주의를 결합시켰으며, 오스트리아 세세션의 기초를 닦았다. 그의 가구들은 다름슈타트에 있는 헤센(Hessen)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가구의 특징: <그림 13>의 프리드만(Friedmann) 빌라의 손님객실을 위해 제작한 팔걸이의자에

서 보이는 것처럼 추상적·유기체적인 조각장식의 디자인은 힘 있는 선과 부드럽게 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14>의 도서관가구에서는 한 층 정리된 추상적인 선과 장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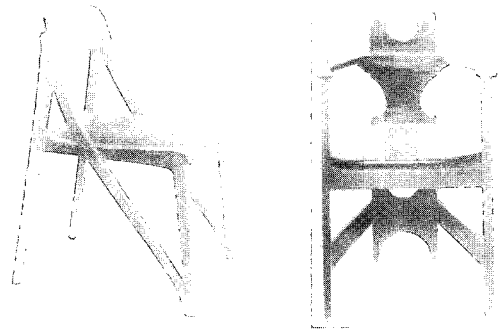
▲<그림 13> 팔걸이의자, 마호가니, 가축, 1898/99  
 ►<그림 14> 헤센의 루드비히대공을 위한 성의 도서관, 기센(Gießen), 1906

### 3-2 리하르트 리머스미트

(Richard Riemerschmid: 1868-1957)

1897년 뮌헨의 수공업 예술가를 위한 작업장 연합의 공동 설립자이며, 1901년 뮌헨의 배우들을 위한 집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금속, 유리, 오지(사기)그릇, 도자기, 천 그리고 양탄자를 설계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건축가 뿐만 아니라 가구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가구의 특징:** <그림15>와 같이 등받이에서 좌판을 지나 앞다리로 이어지는 구조는 그해 다른 작가들에 의해 무수히 모방되어졌다. 기능성에 치중한 그의 가구들은 시끌스러운 소박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반 데 벨데의 영향이기도 하다.



▲<그림 15> 음악실 의자, 드레스덴, 1899  
 ►<그림 16> 붉은 칠을 한 팔걸이의자, 너도밤나무, 뉘른베르그, 1900

### 3-3 페터 베렌스

(Peter Behrens: 1868-1940)

함부르크 태생으로 리머스미트와 함께 독일 산업디자이너 1세대에 속하며, 수공예를 위한 뮌헨 연합회의 공동 창설자이다. 그는 뮌헨의 세세션 창립구성원이었으며, 현대 산업문화의 개척자로서 베를린의 AEG(7)전자회사를 위한 디자이너와 건축가로서의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진다. 가구디자이너로서의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후에 헤르만 무테지우스(8)와 함께 독일공작연맹의 주역이 된다. 그의 제자로는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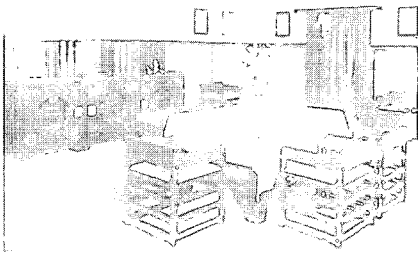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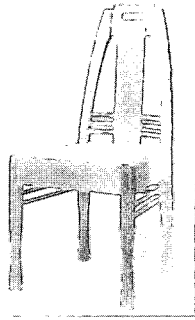
**가구의 특징:** 유겐트스틸 초기에 속하는 가구, 유리, 도자 그리고 장신구 디자인은 흐르는 듯한 곡선이 특징이나 1901년에 이 흐르는 듯한 선을 포기하고 새로운 객관적인 양식을 발전시켰다. <그림17>과 같이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고 등받이와 4개의 다리

7) 독일전기 카르텔회사: 1887년 설립, CI디자인을 도입하여 성공하였음. 정시화, 산업디자인150년, 미진사, 1998

8) Hermann Muthesius (1861-1927): 독일공작연맹의 창설자. 공예는 즉물적(即物的)인 것을 지향해야하며 유겐트스틸처럼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다고 주장함. 이진호 편저, 디자인통론, 유평문화사, 1998

밑 부분에 약간 잘록하게 들어가는 곡선을 가미하였다. <그림18>은 전체적으로 직선적이며 벽과 천정은 흰색을 칠하고, 짙은 붉은색의 마호가니로 가구를 만들었다. 장식적인 것보다 훌륭한 비례를 강조한 그의 가구들은 단순하며 기능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림 17> 참나무, 갈대류로 엮어 만든 좌판, 1902



<그림 18> 마호가니, 드레스덴, 1903

### 3-4 아우구스트 엔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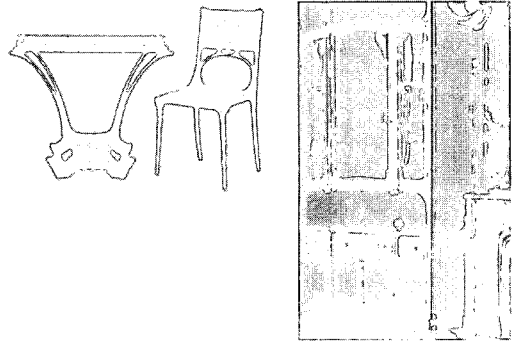
(August Endell: 1871-1925)

전쟁으로 파손된 사진 스튜디오 "엘비라(Elvira)"의 전면과 계단부분을 설계하면서 유명해진 그는 리멀슈미트와 오브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유겐트스틸 초기 뮌헨의 예술가이다.

**가구의 특징:**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특히 헤어만 오브리스트<sup>9)</sup>의 <그림19>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1852-1926)와 빅토르 호르타의<그림20>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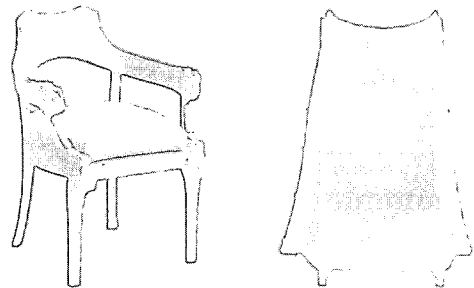
9) Hermann Obrist(1863-1927): 스위스출생. 하이델베르그에서 자연과학을 전공. 칼스루헤에서 공예 수학. 1892년 플로렌즈에 자수공방 설립. 간결한 선이 가구의 특징임. Lydia L. Dewiel, stühle & sessel, HEYNE, 1999

일과 비슷한 것에 대한 많은 예술전문가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21>의 의자는 팔걸이와 다리부분 그리고 같은 형태를 띤 등받이에서처럼 무릎관절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오브리스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주로 사용한 재료는 느릅나무와 쿠션이다.



▲<그림 19> 오브리스트, 서비스테이블과 의자, 1898

▶<그림 20> 호르타, 솔베이 호텔(Solvay Hotel)의 찬장, 브뤼셀, 1895-1900



<그림 21> 엔델, 안락의자와 책장, 1900

### 3-5 베른하르트 판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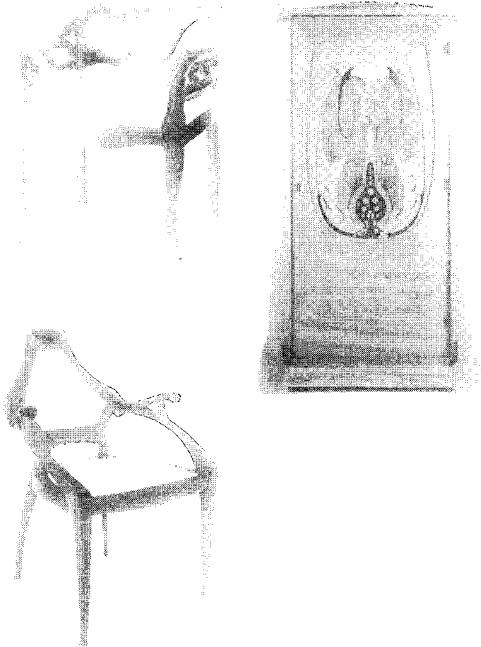
(Bernhard Pankok: 1872-1943)

독일 뮌스터(Münster) 태생으로 잡지 "유겐트"를 위한 일러스트로 일했으며, 1902년까지 뮌헨에 머물다 슈투트가르트(Stuttgart)로 이주한다.

**가구의 특징:** 흐르는 듯한 선이 특징이며, <그림22>에서와 같이 초기의 가구들은 육중한 느낌을 주는데 등받이에서 팔걸이 그리고



다리 밑까지 이어지는 곡선은 이러한 육중함을 완화시켜준다. <그림23>의 옷장은 맨 위 부분에 뾰족한 두 귀와 염소다리와 같은 밑부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흉곽을 나타내는 부분에는 두 마리의 새와 남근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기의 가구들은 <그림24>처럼 마치 늘씬한 여자를 보는 것과 같이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 ▲▲ 맨 위 <그림 22> 안락의자, 마호가니, 1899
- ▶ <그림23> 옷장, 참나무에 벗나무 무늬목, 뮌헨, 1902
- ▲ 위 <그림24> 여성을 위한 팔걸이의자, 뮌헨, 1900/01

### 3-6 브루노 파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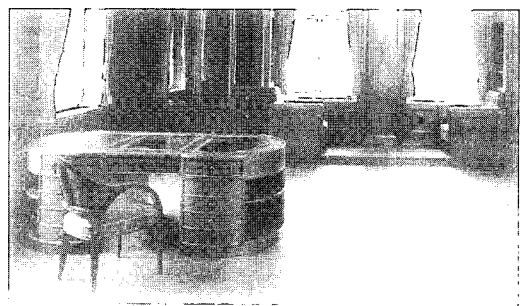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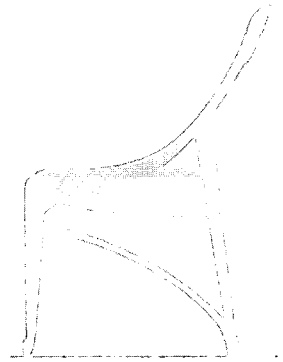
(Bruno Paul: 1874-1968)

가구의 기능적인 구조를 목표로 하는 독일 연합회의 창립구성원이며, 1924년부터 32년까지는 베를린의 순수과 응용미술을 위한 국립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면서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가구의 특징: <그림25>의 스kets치에서 보듯이 등받이에서 좌판에 연결되는 선과 앞다리

와 뒷다리를 이어주는 곡선은 <그림15>의 리델슈미트 의자와 흡사하다. <그림26>는 슈타인(Stein)성의 남자가 사용하는 방의 가구들로 양 옆이 둥글게 돌아가는 형태의 책상과 등받이와 팔걸이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의자에서 그의 특징인 흐르는 듯한 선을 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킨토시의 영향을 받아 직선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림 25> 의자 스kets치, 1900, 뮌헨



<그림 26> 슈타인성의 남자방 가구, 뉘른베르크, 19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겐트스틸 작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재료와 형태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특성 작가	형 태	재 료
올브리히	추상적·유기체적인 조각장식-힘 있는 선	마호가니
리얼슈미트	기능성에 치중한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 정확하고, 구조적이며, 합리적임	마호가니, 너도밤나무
베렌스	초기: 흐르는 듯한 선 후기: 직선적이며, 단순하고 기능적인 형태	마호가니, 참나무, 쿠션,
엔 델	무릎관절 같은 매듭형태의 곡선	느릅나무, 쿠션, 호두나무
판 콕	흐르는 듯한 선	호두나무, 참나무, 벗나무, 마호가니
파 울	초기: 흐르는 듯한 선 후기: 직선	

#### 4. 결 론

유럽 다른 나라의 가구들이 자연적인 선에 충실하여 식물줄기처럼 흐르는 듯한 곡선과 직선을 사용한 형태로 가볍고 날렵함을 보여주는 반면, 유겐트스틸의 작가들은 대부분 기능주의에 입각한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가구들을 디자인하였는데, 즉 식물적인 곡선을 패턴화하고 추상화 하였으며, 무게감이 느껴지는 중후함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재료는 주로 서인도나 아프리카산 마호가니(Mahogany), 참나무 그리고 호두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였다. 특히 마호가니는 나뭇결이 치밀하고 색채와 광택이 아름다우며, 공작이 용이하여 실내장식재나 가구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아르누보의 현란한 곡선들과 과장된 장식은 유겐트스틸에서 정리되고 단순화된 선으로 자리 잡으며, 장식 또한 절제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독일의 과학적이며, 합

리주의적 사고방식과 관련이 깊으며, 뒤이어 오는 독일공작연맹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5. 참고문헌

1. 김경숙, 현대의자디자인 역사, 기문당, 1991
2. 오영근, 세계가구의 역사, 기문당, 1999
3. 이건호 편저, 디자인통론, 유펜문화사, 1998
4. 이연숙, 현대가구의 역사, 경춘사, 1988
5. 정시화, 산업디자인150년, 미진사, 1998
6. 조정숙, 조정민 역/Lucie-Smith. Edward, 가구의 역사, 기문당, 1992
7. 월간가구가이드, 2001년 8월
8. Edith Holm, stühle von der Antike bis zur Moderne, 1978, 독일 뮌헨
9. Lydia L. Dewiel, stühle & sessel, HEYNE, 1999, 독일 뮌헨
10. Möbeldesign, Sembach, Leuthäuser, Gössel, Taschen, 1993, 독일 쾰른
11.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Köln, Möbel, 1989, 독일 쾰른
12. yahoo.com/ 인물사전